제주선수단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목표보다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입장하는 제주선수단. 연합뉴스

'100회 전국체전' 넘어 도약 꿈꾸는 제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양궁·수영·육상 등 선전 메달 목표 '초과 달성'
직장운동부 성적 향상·우수 선수 발굴 등 과제

지난 10일 막을 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은 양궁과 수영, 육상 등에서 선전하며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일부 종목에서의 부진 극복과 경기력 향상 등은 앞으로 제주 체육이 안아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제주선수단은 지난 4일부터 7일간 서울시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참가해 19개 종목에서 당초 목표(65개)보다 많은 84개 메달을 따냈다. 종목별로 보면 양궁 16개(금 8·은 4·동 4), 수영 11개(금 3·은 4·동 4), 육상 9개(금 5·은 1·동 3), 레슬링 8개(금 2·동 6) 등이다.

올해도 양궁은 제주선수단의 효자종목이었다. 출전 종목 중 가장 많은 메달이 나왔다. 시범경기인 컴파운드에선 남자일반부 50m 최용희·김종호(현대제철)와 홍성호(도양궁협회)가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다. 이들 모두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제주선수단의 우세 종목 중 하나인 수영에선 작년보다 6개 적은 메달을 따는 데 그쳤다. 하지만 남자 일반부 평영 50m와 평영 1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고 평영 50m 대회 3연패를 기록하는 감동을 선사했다.

육상 필드 부문에선 예년과 다른 성장세가 돋보였다. 트랙 경기에서 여자 대학부 800m 최수미(제주대)가 2분16초62의 기록으로 금빛 질주를 펼쳤으며 남자 일반부 1만m에서 김태진(제주시청)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지난해 메달 획득에 실패한 볼링에서도 개인전, 마스터즈에서 메달 소식이 전해졌다.

선수 개인에게도 올해 체전은 기록적인 대회로 남았다. 역도 여자 일반부 64kg급 김수경(제주도청)은 용상에서 122kg을 들어 1위를 기록하며 역대 체전 참가 제주선수 중 50번째 메달을 획득한 첫 선수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토너먼트 종목에선 축구 남자대학부에 출전한 제주국제대의 사상 첫 금메달이 단연 인상적이었다. 약한 종목이라는 그간의 평가를 불식시킨 한방이었다. 제주선수단은 레슬링, 씨름, 탁구, 태권도 등에서도 목표보다 많은 메달을 수확했다. 하키와 야구소프트볼에서의 부진은 과제로 남게 됐다.

올해 전국체전이 제주 체육에 던진 과제는 분명하다. 이는 제주선수단이 메달 175개로 종합성적 11위를 기록한 2014년 전국체전 당시 정점에 있던 일반부 직장운동부의 전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제주체육의 근간이던 학교체육환경이 스포츠클럽 도입 등으로 빠르게 바뀌는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이에 제주도체육회는 이번 체전을 기점으로 제주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수 수급과 육성방법에 대한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우수 꿈나무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등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체육회는 "제주선수단의 성적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직장경기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체전 참가 결과를 분석한 뒤 유관기관과 제도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주특성화 종목을 연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임성재, 제네시스 챔피언십 대역전 우승

7타 뒤진 공동 5위서 짜릿한 뒤집기… 역전승
'1부 투어' 첫 정상,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

2018-2019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왕 임성재(21)가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임성재는 13일 인천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 코리아(파72·7434야드)에서 열린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이 대회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혔으나 3라운드까지 선두 문경준(37)에 7타 뒤진 공동 5위(1언더파 215타)였던 임성재는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2위 문경준, 권성열(33·이상 4언더파 284타)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 프로로 전향해 이듬해 국내 1부 투어인 코리안투어에 진입한 임성재는 일본 투어를 병행했으나 두 곳 모두 이전까진 우승 경험이 없었다.

2018년 미국 무대로 진출한 뒤엔 지난해 8월 포틀랜드 오픈 등 PGA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만 2승을 거둔 바 있다.

국내외를 통틀어 '1부 투어'의 첫 우승을 신고한 임성재는 상금 3억원과 제네시스 세단 1대를 챙겼다.

2위에 5타 차 선두로 출발한 문경준이 긴장한 탓인지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며 분위기는 서서히 임성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문경준이 2번 홀, 4번 홀(이상 파4)에서 연이은 보기로 주춤한 사이 임성재는 4~5번 홀 연속 버디를 앞세워 3타 차 추격에 나섰다.

이어 9번 홀(파4) 3m, 10번 홀(파4) 7m 버디 퍼트를 떨어뜨려 문경준을 한 타차로 몰아붙였다.

12번 홀(파4)에선 두 번째 샷을 홀 1m 남짓에 붙여 맞이한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동 선두를 꿰찼다.

같은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다시 한발 앞선 문경준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선두 사수 의지를 불태웠지만, 임성재는 14번 홀(파4) 티샷을 그린에 올린 뒤 투퍼트 버디로 기세를 이어가며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위태롭던 문경준은 13번 홀(파3) 보기를 적어내 결국 임성재에게 단독 선두를 허용했다.

16번 홀(파4) 임성재의 보기로 다시 공동 선두가 돼 한 치 앞을 알 수 없던 승부는 18번 홀(파5) 임성재의 버디로 갈렸다.

힘찬 드라이버 티샷이 330야드를 날아가 페어웨이에 안착했고, 6번 아이언으로 두 번째 샷을 해 그린을 살짝 넘긴 임성재는 웨지 샷을 홀 2m에 붙인 뒤 버디를 낚아 승기를 잡았다.

13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GCK에서 열린 제네시스 챔피언십 FR에서 임성재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계 뛰어넘는다"… 제주선수단 필승 다짐

15일 전국장애인체전 출전
올해 95개 이상 메달 목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제주도선수단이 필승 의지를 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1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체육관에서 선수와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오는 15~19일 서울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에 제주에선 육상, 농구, 보치아, 론볼, 좌식배구 등 20개 종목의 선수 234명이 참가한다. 체육회 임원과 보호자 169명을 포함해 총 403명으로 선수단이 꾸려졌다.

제주선수단은 올해 대회에서 95개 이상 메달 획득을 목표로 경기에 임한다. 선수단 본진은 체전 개막일인 15일 항공편을 통해 격전지인 서울로 향한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장인 원희룡 도지사는 결단식에서 "그동안 쌓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제주 체육의 저력을 전국에 각인시켜달라"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기에 메달을 목에 걸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박종성 선수단 총감독은 출정보고에서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겠다"며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달성해 제주도장애인체육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할 제주도 선수단이 지난 11일 결단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4(월)

K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5:00 우영팟
15:50 동물의 건축술(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3:00 더 라이브
23:40 저널리즘 토크쇼 J (재)

KBS2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무한리필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조선로코-녹두전(재)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필 샐러드(재)
17:00 썸바이벌 1+1(재)
18:00 생생정보 스페셜
18:20 2019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22:00 조선로코-녹두전
22:35 조선로코-녹두전
23:10 다큐멘터리 3일(재)

MBC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쿵따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좋은 날
10:45 UHD 특선 드라마 W
12:00 12 MBC 뉴스
12:2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13: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16:20 모두 다 쿵따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8:25 TV특강 스페셜
19:30 MBC스포츠 올림픽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22:00 MBC 뉴스데스크
22:55 한글날 특집 겨레말모이
23:55 스포츠 다이어리

JIBS/SBS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장모
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릭! NOW 제주(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18: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9:00 네모세모
18: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2:4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23:20 너는 내운명 2부
23:20 너는 내운명 3부

EBS1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9:30 원더볼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몰랑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카 폴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
17:20 그림을 그려요
19:00 스파이더맨
20:00 머털도사
21:50 EBS 다큐프라임

제주 CBS FM 93.3㎒ 90.9㎒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KCTV
7:00 KCTV 뉴스
8:30 내 별명은 대토령
9:30 KCTV 다큐스페셜
10:30 대한민국 구석구석
12:10 열린TV광장
14:00 KCTV 뉴스
15:00 스포츠당구 더 레슨
16:00 KCTV 다큐스페셜
17:00 KCTV 뉴스
18:00 대한민국 구석구석
19:00 KCTV 뉴스 7
21:3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 서귀포시 FM 105.9㎒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4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에 관한 소식이나 경사스런 일이 있다. 집에 초대해도 원만하다. 48년 마음 조절이 때론 필요하다. 가족간 불화나 성격차이로 갈등. 60년 직장이나 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연. 72년 강함이 부드러움에 패하는 격. 부부애정 흉. 84년 친구나 동료의 도움이 크다. 대인관계에 힘을 쏟아라.

37년 여기저기서 돕는 이가 많으니 일을 성사되고 질병은 회복. 49년 명예 또는 감투 쓸 일이 생기거나 리더자로 인정해주려고 한다. 61년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73년 취업, 직장소식을 접하거나 이성교제 길. 85년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라. 내 뜻이 성사되고 이루어진다.

38년 모임이 있으면 참석, 다만 술은 주량만큼만. 50년 돈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가정불화 우려, 조용한 추진이 필요. 62년 자식 문제가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교통사고 주의. 7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사랑을 받는다. 86년 의견다툼이 있다. 변명보다는 수용의 자세 필요.

39년 자녀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속 태우지마라. 51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업은 순탄하다. 63년 내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거나 계획하는 일이 발전이 있게 된다. 75년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기쁘나 호사다마 있으니 주의. 87년 부모님의 걱정이 있으나, 긍정사고로 좋은 결과를 만든다.

40년 몸과 마음이 허전하다. 친구나 취미동호회가 필요. 52년 덕을 쌓는 지혜가 필요. 봉사할 일이 생긴다. 64년 생각은 많아 결정하는데 망설인다. 신속한 결정이 인정받는다. 76년 신중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야. 88년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안타깝다. 밖으로 활동하면 이익 있다.

41년 체면과 명예에 얽메여 실익을 미약하다. 53년 재물운이 있지만 투기는 신중해야 한다. 65년 영업이나 생산에 활력이 생기고 결과가 함께 하니 분주함이 오히려 즐겁다. 77년 선택의 갈등이 있다. 안전사고 조심. 89년 자신감이 있어도 자만함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니 자랑은 자제할 것.

42년 외출이나 모임에 참석할 일이 생긴다. 54년 동료나 거래처의 도움은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66년 돈 문제로 불화가 오거나 직장 이동수가 있다. 78년 직장이나 조직생활자는 불만이 많아진다. 내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하라. 90년 휴식이 필요하고 외출 부적절하다.

43년 친구나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좋다. 55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67년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겨도 서두르면 더 큰 화가 된다. 79년 취업이나 영업성과가 나타나고, 새로운 이성이 나타난다. 91년 결단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실천하라.

44년 무리수가 오니 확장이나 이전은 보류하라. 56년 아랫사람이나 자식의 문제로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68년 소망하는 일이 되려다 방해자가 생기니 조심. 80년 친구들과 이성 삼각관계 심각. 무리수를 두지 마라. 시간이 해결. 92년 성과가 작아도 한 만큼 이익이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

45년 주면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57년 윗사람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라. 69년 직장이나 하던 일에서 잠시 휴식을 갖자. 81년 돈의 문제가 발생하니 도난 주의, 돈 거래하지 마라. 93년 형제 또는 동료의 도움 협조가 필요하다.

46년 충동적인 생각이 일을 망치니 신중한 생각보다는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 58년 음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운전은 자제. 70년 일의 성사 어렵고, 이성교제가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82년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무언가 갈망하는 하루가 된다. 94년 친구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겠다.

47년 돈이 안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고달프다. 59년 직장문제 지연, 자녀로 인한 고민이 가득. 전문가와 상의. 71년 영업이 다소 호전되나 부지런함이 최고이다. 승진 또는 행운이 있다. 83년 당장 힘들다고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 필요. 95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주변사람과 논쟁한다.